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1/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
- 미국,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나

경영 노트

- 개방형 신기술 개발 모델 - C&D(Connect & Development, 연결기술)

사회 트렌드

- 남성주부, 1년 새 36.8% 늘어
- 블룩(Blook, Blog+ Book)

저널 브리프

- 풀리고 있는 그린스펀 수수께끼

洗心錄

- 선발이 중요하다

□ 1/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

- 경기 추세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계절 조정 전기대비 GDP 증가율은 2005년 4/4분기 1.6%에서 2006년 1/4분기 1.3%로 0.3%p 하락함
 - 산업별(전기대비 기준)로는 제조업이 0.9% 증가에 그쳤으나, 서비스업(1.2%)과 농림어업(2.9%)이 호조를 나타냄
 - 또한 지출 항목별 GDP를 살펴보면 설비투자과 건설투자 증가율이 각각 -0.7% 및 -0.3%의 감소세를 기록함
 - 한편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르는 무역 손실 확대로 실질 GDI 증가율은 작년 4/4분기 0.9%에서 -0.1%의 감소세로 반전됨에 따라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및 투자 부진으로 고용 상황의 개선이 어려워 보이며, 이에 더하여 실질 국내 총소득 감소(구매력 약화)로 소비 회복도 제약받을 우려가 높아, 경제 성장의 지속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나

- 중국의 환율 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국’ 지정을 추진 중임
 - 미국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對中 무역 역조가 중국의 인위적인 통화 절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환율 개혁을 요구해왔음
 - 최근 美·中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통해 중국의 환율 개혁에 대한 압력을 고조시키고 있음
 - ※ 미국 재무부는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여 환율 절상을 강요하고 있음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보복 관세 부과 등 보다 강화된 통상 제재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개방형 신기술 개발 모델 - C&D (Connect & Develop, 연결 개발)

■ (개요) 세계적 생활용품 업체인 P&G는 짧은 기간에 획기적인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2004년부터 2년 간 고성장을 기록

- P&G는 2004년 감자칩 위에 그림이나 글씨가 적힌 ‘프링글스 프린트’를 출시, 북미 지역의 프링글스 사업은 2년간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
- 제품의 기획에서 출시까지 1년도 채 안 걸린 P&G의 성공 비결은 개방형 신기술 모델(C&D)을 채택한 결과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분석
- 2000년 15% 수준이던 P&G의 C&D를 통한 제품 개발 비중은 2002년 35%로 높아졌으며, 향후 5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내용) 개방형 신기술 개발 모델(C&D)이란, 외부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부의 R&D 역량과 연결시켜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술 혁신 모델임

- 글로벌 기업들이 C&D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술 혁신 비용이 급상승하는 데 비해 연구 개발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임
- 기존의 독자적인 R&D 모델로는 성장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개방형 기술 혁신이라는 새 모델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
- 특히,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 세계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찾는 것이 용이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로 작용

■ (시사점) C&D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에 따른 보상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개방적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문화 혁신이 필수적임

- 기업 내에 C&D 전문가를 육성하여, 전 세계의 연구 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핵심 아이디어 발굴과 기술 탐색을 활성화하여야 함
-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기 위해, 공개 및 비공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문화 조성이 필요
- 또한 연구 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 등 기술의 출처에 관계없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경우,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남성주부, 1년 새 36.8% 늘어

■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주부' 수가 지난해보다 36% 이상 급증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남성주부 수는 2005년 1분기 11만 4,000명에서 2분기 11만 1,000명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3분기 12만 6,000명→4분기 13만 2,000명→2006년 1분기 15만 6,000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또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이 안 될 것 같아 취업을 포기한 남성 구직단념자 수가 올 1분기 중 크게 늘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남성 구직단념자 수는 8만 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7만 3,000명)과 비교해 9.6% 증가함
- 반면 여성 구직단념자 수는 4만 7,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5만 3,000명)에 비해 11.3% 감소함

□ 블록(Blook, blog+ book)

■ 미국 출판계에 '블록'(Blook)이란 신조어가 뜨고 있다 함

- 블록은 1인 인터넷 매체인 블로그(blog)와 책(book)을 합친 말로서, 블로그에 실은 내용을 다시 책에 담아 펴내는 일을 말함
- 美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최신호에 의하면, 요즘 미국은 출판계는 이라크 전쟁에서 요리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블록스(Blooks)를 펴내 재미를 보고 있으며, 베스트셀러 100권 중 대략 20권은 블록스가 차지하고 있다고 전함

■ 블록은 이미 상당한 독자를 확보한 뒤 출판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음

- 대형 출판사인 '리틀 브라운'은 지난해 524가지 프랑스 요리법을 담은 블록인 <줄리 & 줄리아>를 출판해 10만 부나 팔았는데, 책을 산 독자의 약 30%는 평소 블로그를 즐겨 드나들던 사람이었다고 함
- 블록이 뜨자 인터넷에서 인기 블로그를 찾아 출판을 원하는 블록 전문회사도 등장하고 있음

□ 풀리고 있는 그린스펀 수수께끼*

■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지속적인 단기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던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그린스펀 수수께끼가 서서히 풀리고 있음

- (그린스펀 수수께끼) 앨런 그린스펀 전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단기금리인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장기금리가 움직이지 않자 이를 ‘미국경제의 수수께끼’라고 표현함

· 장기금리 정체 원인: 그동안 미국 장기금리가 정체된 원인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했었으며,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 자금이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로 몰렸기 때문임

- (장기금리 상승) 2006년 4월 13일에는 2002년 6월 이후 4년여만에 미국 지표금리인 10년물 국채수익율이 연 5.04%를 기록하는 등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그린스펀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음

· 장기금리 상승 원인: 세계 경기 호조세로 미국 국채로 몰리던 세계 유동자금이 일본과 유럽 및 원자재 등에 분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 의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임

■ (전망) 일본의 경기회복에 따르는 금리 인상, 중동 등 외환보유국들의 외화 운용 다변화 등에 의해 미국 장기금리가 더욱 상승할 수 있으나, 2006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장기금리가 다시 4%대로 하락할 수 있음

- (장기금리 상승 시나리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국제유동자금의 일본 환류로 투자 분산 현상이 가속화될 것임. 중동 등 외환보유액이 많은 국가들 또한 외화 운용 다변화 움직임이 강해 미국 국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럴 경우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음

- (장기금리 하락 시나리오) 하지만, 2006년 하반기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인상에 따르는 경제활동 둔화가 가시화 된다면 장기금리는 다시 4%대로 하락할 수 있음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5.1)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선발이 중요하다

서비스가 우수한 기업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만큼 애초 채용 단계에서 우수 사원을 뽑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수행능력(service competencies)과 서비스 성향(service inclination)의 두 가지 능력이 요구된다. 서비스 수행능력이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의 기술과 지식 등을 말하며, 서비스 성향이란 가치관, 친근감, 고객에 대한 배려 등의 태도이다. 서비스 부문 직원에게 더 요구되는 자질은 서비스 성향이다. 서비스 수행능력은 교육으로 보강될 수 있지만, 서비스 성향은 여간해서는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로젠블루스 여행사의 CEO, 로젠블루스의 말처럼, 기업이 직원들에게 업무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시킬 수는 있지만, 태도가 좋아지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싱가폴에어라인 승무원 특유의 밝은 미소는 특별한 스마일 교육 때문이 아니라 채용때부터 잘 웃는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어라인은 교육으로 고쳐질 수 없는 선천적인 직원 특성으로 성실성(integrity), 독창성(initiative), 지성(intellect), 사교성(social skill)과 함께 키, 치아, 눈, 몸무게 등 신체적 요구 사항 등을 들고 있으며, 선발위원회에서 이러한 조건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서비스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리츠칼튼호텔은 “처음에 올바른 사람을 뽑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사정책을 갖고 있다. 인재 선발시 업무 윤리, 자부심, 설득력, 대인관계, 팀워크, 긍정적 사고, 서비스 마인드, 감정 이입, 배려심, 정확성과 배움에 대한 열망 등 11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사람이야 리츠칼튼의 기업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한 사람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40분밖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데에는
400시간이 걸린다.”

- 피터 드러커(1917~2005) : 오스트리아 태생의 美 경영학자